

광주, '백신 접종 혼잡도' 전국 최고

예상접종자 700명 이상 의료기관 광주38%·강원23% 등 순

이형석의원 "사전 대응책 마련, 지자체 특별재정 지원해야"

순서	접종 대상	추진 일정	접종 백신
1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27.2만명	대상 등록 ~2.16 수정보완 ~2.19 접종 시작 2월26일 1차 2~3월 2차 4~5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미만 대상 우선 접종
2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의료인) 35.2만명	대상 등록 ~2.18 수정보완 ~2.28 접종 시작 3월8일 1차 3월 2차 5월	
3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7.8만명	대상 안내 ~2.15 대상 확정 ~2.23 접종 시작 3월22일 1차 3월 2차 5월	화이자 백신 2월 말~3월 초 도입 예정
4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5.5만명	대상 등록 ~2.10 중앙-권역-지역체로 점진적 확대 시행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광주시 의료기관의 혼잡도가 전국

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사전 대응책 마련과 함께 특별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에 따르면 최근 국토연구원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독감백신 접종 지정의료기관의 잠재수요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의 경우 예상 접종자가 700명 넘는 의료기관 비중이 38%에 달해 혼잡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 이어 강원도 23%, 부산시 21%, 경남 18%, 충북 17%, 전남 16%, 전북 12% 등의 순이었다.

이번 연구는 접종기관 주변 고령자 잠재수요 격차로 인한 백신접종 방문객 혼잡이나 장시간 대기 등 불편을 예상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백신접종 혼잡은 물론 접종 대상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주어진 기간 내 백신을 맞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교 담장에 교사 모욕 현수막 건 졸업생, 2심도 벌금형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정문 담장에 특정 교사를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모욕과 욕의 광고물 등의 관리·욕의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5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1일 오후 9시 42분께 전남 한 지역 모 고등학교 정문 담장에 이 학교에 재직 중인 B교사를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게시한 현수막에는 'OOO 선생님, 교육자의 투쟁은 학교 교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 열정 우리 후배들에게 쏟아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B교사의 성명을 빗대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도 게시했다.

A씨는 이 학교 졸업생으로, B교사의 시민사회 활동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게시한 현수막 내용은 사회 통념상 피해자가 성적 능력이 불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피해자가 매우 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 대한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도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입찰과정 부당 공동행위 레미콘조합 3곳, 2심도 벌금형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입찰 과정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레미콘협동조합 3곳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레미콘 협동조합 3곳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레미콘 협동조합 1곳은 벌금 4000만 원을, 또 다른 레미콘 협동조합 2곳은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조합의 입찰담당자들은 2015년 광주지방조달청 입찰장에서 각 조합의 입찰 대리인으로 참석, 앞선 합의에 따라 광주·전남 각 권역에 입찰하면서 낙찰자 또는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낙찰 가능성이 희박한 기초금액 대비 100.20%의 근접한 입찰가로 최초 투찰하고, 재투찰 과정에서도 낙찰 예정자의 투찰금액 보다 낮지 않도록 최초 투찰 금액에서 불과 0.01~0.02%만 낮추는 방법을 통해 물량을 낙찰받았다.

이들 조합은 상호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이 같은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합의 회원사인 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제조 뒤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해야 하는 제품의 특성 때문에 권역을 나눠 영업하고 있다.

광주 신용지하차도 10중 추돌 사고 이어져

17일 오후 2시24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신용지하차도 입구 내리막길을 달리던 승합차가 미끄러지며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뒤따르던 차량 9대가 급정거를 하거나 엉키며 연쇄 추돌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구간 통행을 1시간 넘게 통제하고, 사고 차량 10대를 견인하는 등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경찰은 지하차도 진입 구간 노면에 끈 살얼음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게 아닌가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고속도 사고 화물차서 닭 500여마리 쏟아져 연쇄 추돌

버스·분리대 잇따라 들이받음 화물차 실린 닭장 넘어져 뒤따른 차량 11대도 추돌...현장 수습에 2시간여 지·정체



순천-완주간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난 화물차에 실린 닭 500여 마리가 도로 위로 쏟아졌다. 뒤따르던 차량 11대도 급정거를 하려다 연쇄 추돌, 1명이 다쳤다.

17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전남 구례군 산동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천마터널 출구

(완주 방면) 인근에서 닭장을 싣고 달리던 10t급 화물차가 앞선 대형버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 분리대를 충돌, 적재함에 실린 닭장이 넘어지며 닭 500여 마리가 도로에 쏟아졌다.

뒤따르던 승용차·SUV 등 차량 11대도 미처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연쇄 추돌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0대 여성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1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2시간 넘게 차량 지·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낮 12시6분부터 모든 차선 소통이 재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부터 내린 눈으로 노면이 얼어 화물차가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선욱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